다산포럼

대한민국 100돌 눈앞에

황 상 익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해내외(海內外) 지역 대표들로 구성된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제정하여 국호(國號), 즉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했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제'를 채택했다. 우리 역사 최초로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 탄생한 것이다.

조약 자체의 유효성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민족은 1910년 8월 29일에 공포된 조약으로 나라를 잃었다. 적어도 당시에는 그렇게들 생각했다. 그 조약의 제1조는 "한국 황제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에게 양여한다"로 되어 있어 망국은 불가역적인 것으로 보였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대한제국 황제가 일본국 황제에게 나라를 통째로, 게다가 영원히 넘겨준 지 10년도 되지 않아 한민족은 거족적으로 '국가 양여'와 병탄에 항거했다. 1919년 3월 1일의 기미 독립선언문을 통해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라고 선포했으며, 독립국임과 자주민임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 고귀한 피와 눈물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이다.

한민족은 기미년 민족운동을 통해 단순히 나라를 복구한 것이 아니라 민(民)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건국했다. 일제에게 선선히 나라를 넘겨주고 민을 망국민, 노예로 전락시킨 황제에게 다시 나라를 바칠 이유도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역사적으로 충분히 입증되거니와 법적으로는 어떤가? 1948년의 제헌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역사상 최초로 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된 국회는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국되었음을 명백히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부터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1919년 8월 21일 창간된 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은 발간하는 내내 '대한민국 ○○년' 식으로 연도를 표시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교민들이 발행하던 '신한민보'는 1919년 9월 18일 자부터 대한민국 연호와 단기(건국기원)를 병용하다 1940년 2월 1일부터는 대한민국 연호만 사용했다.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도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했다. 관보 1호의 발행일은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다. 1919년이 대한민국 원년, 즉 건국한 해라는 뜻이다. 5호까지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하던 관보는 9월 28일 발간된 6호부터는 단기를 썼다. 9월 25일 자로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단군기원으로 한다"는 '연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기 때문이다.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국되었음을 밝힌 당시 국회가 단기를 연호로 채택한 것은 한민족이 오랜 옛날부터 국가를 이루고 있었음을 만방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대통령 이승만은 국회의 결정에 따르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내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기원을 사용하기로 주장해 온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으니, 첫째는 민국이라는 명칭에 표시되는 민주정치제도를 우리는 이제 와서 남의 조력으로 수립한 것이 아니라 벌써 30년 전에 기미독립운동으로 민국 정부를 수립하여 세계에 선포하였다는 위대한 민주주의를 자유로 수립한 정신을 숭상하기 때문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나라 건국의 역사가 유구하여 외국에 자랑할 만한 전통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4~5000년 전의 신화시대까지 소급하여 연대를 계산하는 것은 근대에 와서 우리가 광영될 사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게 되는 까닭이다."

단기를 쓰는 것이 대한민국 건국의 의의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을 터이다. 어쨌든 이승만은 1919년의 대한민국 수립을 자주, 민주정신의 발로라고 정확하게 지적했다.

한반도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국가가 있다. 엄연한 현실이다. 후자는 1948년 9월 9일에 세워졌다. 전자, 즉 대한민국의 건국 연도는 언제인가?

살펴보았듯이 대한민국이 1919년에 세워진 것은 역사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명명백백하다. 1948년 8월 15일에 임시정부가 아닌 정식 정부가 수립된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이라는 말인지. 그러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타당한 근거도 없이 29년이나 단축하는 행위는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안창호는 1920년 3월 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개최한 첫 번째 '3·1절' 기념식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지난 일 년간 일본인은 이날을 무효화하려 했고, 우리는 이날을 유효하게 하려 싸웠소. 우리의 최대 의무는 이날을 영원히 유효하게 함이외다."

'대한민국 건국 100년'이 3년 앞으로 다가왔다. 기념행사도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건국절'도 제정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일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만개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일 터이다.

청춘 톡·톡

209호, 고양이와 나

박 누 리
광주대 문예창작과 4학년

학과 사무실에 출근하기 전, 사료를 채워주고 화장실을 치우고 물을 새로 따라준다. '집사'의 아침이란 이런 것이다. 나는 아침을 굶어도 '주인님'의 식량은 꼭 챙겨야 한다. 내 화장실은 더러워도 '주인님' 화장실은 깨끗해야 한다.

나는 작은 원룸 방에서 며칠 전 1살이 된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다. 예전 이름은 '체다', 지금은 '유자', 노란색 털 코트를 입고 있는 코리안 숏 헤어 치즈태비 고양이다. 유자는 길에서 살던 엄마 고양이의 배 속에 있을 때, 좋은 분에게 구조된 덕분에 집 고양이로 태어났다. 유자와 나는 지난해 6월 22일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고양이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 사실 그때 좋아했던 고양이들은 하얀 털이나 회색 털을 가진 아이들이었다. 노란 고양이는 길에서 마주치는 길고양이라고만 생각했었다. 그런 내가 유자를 데려오게 된 이유는 정말 간단하다. 너무 예뻤다. 사진 한 장에 홀딱 반해서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 가입해 있던 고양이 카페에서 예쁜 고양이 사진들을 훔쳐보던 내 눈에 아주 예쁘게 생긴 고양이가 들어왔다. 글의 제목은 '체다만 입양 문의가 한 건도 없네요. 형제들이 지나치게 예뻐서 그 미모가 가려진 탓일까요?'였다. '아니 저렇게 예쁜데?'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나도 모르게 입양 문의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대학생이고, 아르바이트로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고, 집에 있는 시간도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망설였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고민하는 사이 유자는 다른 집 고양이가 될 뻔 했다. 나는 정말 많이 후회했다. 그리고 조금 뒤 유자의 성별이 수컷에서 암컷으로 뒤집어졌다. 너무 어려 분별하기가 어려웠던 탓이었다. 그 이유로 입양이 취소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결국 유자는 내 고양이가 되었다.

처음 왔던 날은 고양이가 아니라 아기 새로 보일만큼 작아 쓰다듬는 것도 겁이 나던 아기 고양이는 정말 많이 자랐다. 듬직해졌다. 자기주장이 뚜렷한 아가씨가 되었다. 귀찮게 굴면 손을 깨물고, 부를 땐 오지 않고 자기가 내킬 때에만 옆으로 와서 애교를 부린다. 과제를 하거나 게임을 할 때, 공부를 할 때는 왜인지 모르게 방해한다. 책상 위에 앉아 모니터를 못 보게 하거나 키보드 위에 드러눕는다. 한 시간 만에 끝날 수 있던 과제가 두 시간 세 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은 모두 유자가 너무 귀여운 탓이다.

나는 사실 좋은 주인이 아니다. 처음에는 이름을 '낑깡'이라고 지을 뻔 했고, 맛있는 간식을 자주 주는 것도, 비싼 사료를 먹이는 것도, 넓은 집에 살게 하는 것도, 커다란 유리창으로 밖을 구경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많은 시간을 집에서 함께 있는 것도 못 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자는 내가 외출을 하려고 하면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져 발목에 상처를 내고, 돌아오면 문 앞까지 마중 나와 애교를 부린다. 비싼 사료가 아니어도 맛있게 먹어 주고, 아픈 곳 없이 자라 주었다. 잘 때가 되면 옆으로 와 팔베개를 하고 잔다. 작은 내 고양이는 체온이 높아서 등짝에 얼굴을 부비기에 최적화 되어 있다. 아침에 일어나 변태처럼 등짝에 코를 박고 킁킁거리면 유자는 그르릉 그르릉 소리를 내며 기지개를 켠다. 그렇게 시작되는 아침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얘가 없었을 땐 심심하고 외로워서 어떻게 혼자 살았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책임비 5만원으로 온 유자는 나에게 5만원 보다 훨씬 커다란 가치가 되었다.

유자야, 엄마가 얼른 졸업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돈 많이 벌어 올게. 그때는 더 넓은 집에서 커다란 캣타워에 누워서 창밖을 구경하자. 그때는 동생 고양이도 생길지도 몰라. 유자야, 엄마 깨물어도 되고, 새벽에 깨워도 되고, 털 뿜어서 이불이랑 옷에 털 잔치 열어도 괜찮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자.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갈게. 고양이가 이렇게나 좋은 생명체입니다.

기 고

전남에서 '제6의 물결'을 선도하자

최 종 선
전남도 경제과학국장

지난주 여수 묘도의 봉화산 전망대에 올랐다. 광양만권의 산업현장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왼쪽에는 일관제철소 기준 세계 1위의 광양제철소, 오른쪽에는 에틸렌 생산기준 세계 4위의 여수 석유화학단지가 눈에 들어왔다. 전남 제조업 생산액의 88%를 차지하는 산업동맥이다.

전통산업이다 보니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한 엄청나다.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 6억9000만 톤의 11%인 약 7000만 톤이 이곳에서 발생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기업들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21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에서 위기를 해결할 물꼬가 트였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역발상을 통한 탄소자원화 전략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언론보도를 보면 탄소자원화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와 부생가스를 화학원료와 수송연료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광양만권에 대규모 탄소전환 실증 단지를 건설하고 산업협력 생태계를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광양만권은 울산, 포항과 달리 철강과 화학산업이 양존하고 있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곳이다. 즉, 광양제철소에서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면 여수화학단지의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최적지이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광양만권은 이번 사업에서 대규모 탄소전환 실증단지를 건설하는 시범단지로 선정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대규모 탄소자원화 실증단지를 광양만권에 구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세계적인 혁신모델을 만들고 글로벌 진출지원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탄소자원화 기술실증 지원을 위한 1단계 연구개발 사업화에 450억원을 지원하고, 2단계 실증 지원 사업에는 약 15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여 규제개혁, 민간투자촉진 및 기술이전 등을 활성화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도는 이산화탄소와 슬래그 등을 산업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난해부터 준비하여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미래신성장동력 CO2 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을 신청했다. 최근에는 2017년도 지역거점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내년부터 5년간 국비 100억을 포함하여 총 214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이산화탄소 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국내외 이산화 탄소산업을 선도하면서 향후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6의 물결'이라는 용어는 원래 미래학자 제임스 브래드필드 무디와 비앙카 노그래디가 앞으로 30년을 지배할 혁신 물결을 표현하기 위해 쓴 용어다. 두 저자에 의하면, '제6의 물결'은 자원이 한정된 시대에서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기술이 각광받는 시대를 의미하며 기후변화, 에너지산산업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한다.

제6의 물결인 자원 한정시대의 에너지혁명이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있다. 바야흐로 에너지가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얘기다. 제5의 물결인 정보통신기술(ICT)이 그간의 세계 경제를 이끌었다면 미래는 탄소배출이 없는 신재생 에너지 등 한정자원을 이용한 효율적 활용 정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학계는 전망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한가지 희망으로 '제6의 물결'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전남도가 그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길 기대해 본다. 우리는 이미 탄소제로 에너지 자립섬 등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여기에 온실가스를 재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글로벌 혁신 모델을 수출하는 지역으로 도약하도록 지역혁신 역량을 총결집해야 할 시기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중국 관광객 유치 관건은 면세점 신설이다

지난 주말 서울과 부산·제주 등의 명소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넘쳐났다. 중국의 노동절 연휴(4.29~5.2)와 일본의 '황금주간'(4월 말~5월 초 공휴일 집중 기간)을 맞아 중국인 관광객 '유커'와 일본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것이다.

하지만 광주·전남은 전혀 딴판이었다.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충장로나 풍광이 빼어난 여수 바닷가 등에서 드문드문 관광객이 보였을 뿐이다. 왜 이처럼 한산했을까. 상대적으로 볼거리가 많지 않은 탓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호텔과 시내 면세점 등 관광 인프라가 태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면세점은 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필수 방문 코스다. 세계적인 품질로 인기를 끌고 있는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등을 구매할 수 있어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판매 수요를 따져 서울 등에 편중되는 바람에 광주·전남은 관광 특수를 먼발치에서 바라보며 부러워만 하고 있는 처지다.

면세점 신규 설치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다. '이용자 수와 매출액 중 외국인 비율이 각각 50% 이상이거나 광역단체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 명이 늘어나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중소기업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지만 투자 부담이 너무 커 그림의 떡이다. 2012년 순천에서 면세점을 추진했다가 포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서울 4곳과 크루즈 관광객이 많은 부산 및 동계올림픽 개최지 강원에 면세점 1곳씩을 새로 허가할 방침이라고 한다. 마침 국민의당 박지원·박주선 의원이 서남해안의 관광자원과 남도 음식 등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 잠재력이 충분한 호남에도 면세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관광산업의 '부익부 빈익빈' 해소를 통해 균형발전을 꾀할 의지가 있다면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수사 한 점 의혹도 없도록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수백 명이 사망했는데도 늑장 대응과 책임 회피만이 온통 판을 쳤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형마트들이 최근 옥시 제품 판촉행사에 나서 국민들의 분노에 더욱 기름을 붓기도 했다.

이 사건은 사망자만 200여 명이 넘고 수많은 생존 환자가 고통받고 있는 대형 참사이다. 하지만 제조업체는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는 변명으로 줄곧 발뺌하기에 급급했다. 이 때문에 피해가 인정되기까지는 장구한 시간이 필요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이 10여 년 전부터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지적해 왔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정부 또한 독성물질이 호흡기와 관련된 생활용품에 들어갈 때까지 방치했고, 피해자 속출에도 대처를 소홀히 해 사태를 키웠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2011년이었다. 이후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서 221명이 공식 피해자로 인정되었다.

피해자들의 절규는 제조업체나 정부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아 오다가 올해 1월에야 검찰이 이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 수사팀을 구성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철저 조사'를 지시한 다음날인 지난달 29일에야 환경부는 부랴부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인정 범위를 폐 이외의 질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3~4년 전부터 폐 이외 질환에 대한 영향을 인정하라는 지적을 줄곧 외면해오다 대통령 발언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파문은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이 겹쳐 발생한 '안방의 세월호 사태'나 다름없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제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소환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오월의 기자

"…나는 기사를 쓰는 기자이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 광주 소식이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 않으니 언젠가는 오늘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공개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고 있어! 만약 자네들(학생수습위를 지칭)이 잘 적고 있다면 나는 이 메모가 필요 없네."(김영택 '5월 18일, 광주')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을 몰아낸 5월 21일, 전남도청 인근 대도여관 옥상에서 사진을 찍으려다 군용 헬기의 조준사격으로 죽을 뻔했고, 시장바구니 속에 카메라를 감추고 나와 전남도청 앞에 걸린 조기를 찍으려다 시민군들에게 간첩으로 오해받아 맞아 죽을 뻔도 했다.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살벌한 상황에서 그래도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자 최선을 다한 것은 언젠가 광주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이었다…"(나경택 '앵글과 눈동자')

1980년 5월, 신군부는 철저한 보도 통제를 실시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았다.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절한 일들이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 전혀 전해지지 못했다. 그래도 '사명감'을 가진 일부 기자들은 봉변을 당하면서도 취재 수첩에 기록하고, 사진을 찍었다.

당시 독일 제1공영방송(ARD-NDR) 일본 특파원이던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 역시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어렵사리 광주에 들어와 참상을 낱낱이 기록했다. 그리고 그는 목숨을 걸고 찍은 광주 학살의 필름을 과자 봉지 안에 숨겨 가지고 김포공항 검색대를 통과했다. 일본으로 출국한 그는 그렇게 해서 5·18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

1980년대 중반 대학에 입학한 후 충격적으로 봤던 5·18 비디오 영상이 그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다. 그를 비롯해 현장을 지키며 기록하고자 한 용기 있는 기자들이 아니었다면 광주의 '진실'은 영영 묻혀버렸을지도 모른다.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힌츠페터 기자를 기리는 추모 정원이 망월동 구 묘역에 만들어진다. 정원 표지석 아래에는 고인이 2005년 광주 방문 때 5·18 재단에 맡겼던 손톱과 머리카락이 안장된다.

5·18 민중항쟁 36주기를 맞는다. '기자정신'을 몸소 실천한 그의 영전에 뒤늦게나마 국화 한 송이를 올린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